



미 증시, 메이시스 효과, 낙폭과대 인식 등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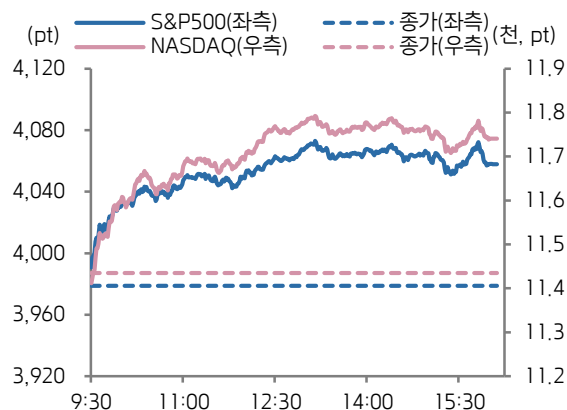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6 일 (목) 미국 증시는 과매도 인식 속 저가매수세, 전일 FOMC 의사록 안도감, 소매유통업체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급등.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1.3%)를 소폭 하회했지만, S&P500 지수는 메이시스 효과로 0.3% 상승 출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2%대 상승 기록.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메이시스(+19.3%)는 어닝 및 가이드스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기타 소비주들 주가 상승 견인. 추가적으로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디비아(+5.2%)의 상승 전환, 6 월부터 상해의 전면적인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 오후 차익실현 압력, 경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지만, 연일 상승(전거래일 S&P500 +1.0%, 나스닥 +1.5%)에 성공(다우 +1.61%, S&P500 +1.99%, 나스닥 +2.68%, 러셀 2000 +2.17%).

업종별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전업종 상승.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경기소비재(+4.8%), IT(+2.4%), 금융(+2.2%)였음. 뿐만 아니라 산업재(+2.0%), 소재(+1.8%), 에너지(+1.1%) 등 경기 민감 업종들도 견조하게 상승.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5.2%) 급등에 힘입어 3.9% 급등. 다우 운송 지수(+2.9%), 다우 항공 섹터 지수(+6.0%) 또한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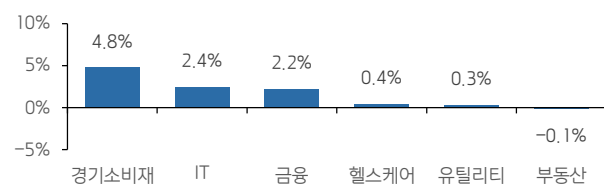
종목별로 달러트리(+21.9%)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격 인상 발표로 주가 급등, 달러제너럴(+14.0%)도 동반 상승. 이날 아마존(+4.0%), 테슬라(+7.4%), 홈디포(+3.2%), 나이키(+4.4%) 등 기타 리테일주들도 큰 폭으로 상승. 뿐만 아니라 애플(+2.3%), 메타(+4.2%), 알파벳(+2.3%) 등 빅테크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이날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6.3%), 노르웨지안 크루즈(+12.1%) 등 여행주들도 급등.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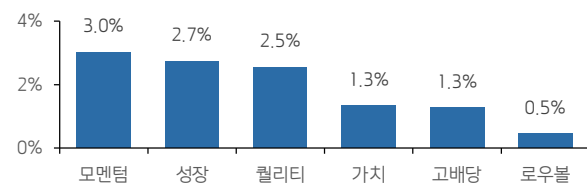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57.84	+1.99%	USD/KRW	1,267.60	+0.25%
NASDAQ	11,740.65	+2.68%	달러 지수	101.76	-0.29%
다우	32,637.19	+1.61%	EUR/USD	1.07	+0.05%
VIX	27.50	-3.07%	USD/CNH	6.77	-0.03%
러셀 2000	1,838.24	+2.17%	USD/JPY	127.15	+0.02%
필라. 반도체	2,994.61	+3.8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141.67	+2.89%	국고채 3년	2.955	+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32	+5.1bp
Eurostoxx50	3,740.31	+1.72%	미국 국채 2년	2.476	-1.6bp
MSCI 전세계 지수	639.30	+1.48%	미국 국채 10년	2.747	+0.2bp
MSCI DM 지수	2,700.09	+0.7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9.59	+0.26%	WTI	114.09	+3.41%
MSCI 한국 ETF	66.56	+0.85%	금	1853.9	+0.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5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60.6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메이시스 등 대형 백화점 체인 주가 급등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3.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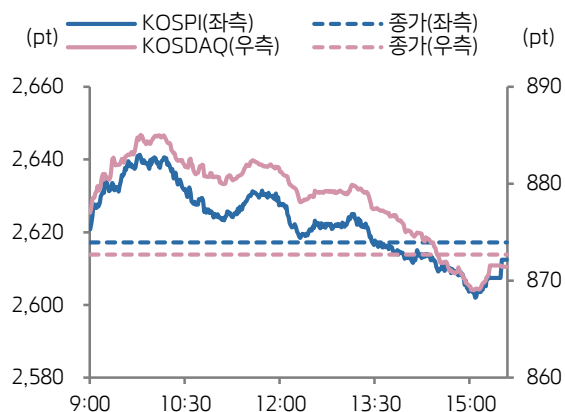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증시가 큰 폭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특정 지표나 특정 기업 실적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별 기업, 섹터를 넘어서 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 SNS 업체 스냅의 주가 폭락이 대형 기술 및 성장주들의 연쇄 주가 급락을 유발한 것이나, 전거래일처럼 메이시스의 주가 급등이 여타 소비, 유통주들의 연쇄 주가 급등을 견인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 또 금일 장마감 후 발표된 의류업체 겐의 가이드런스 부진에 따른 시간 외 주가 급락이 여타 의류주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상존.

이처럼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공급난, 연준 긴축 등 매크로발 악재가 장기간 시장 심리를 지배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은 사실. 그럼에도 주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단기간 과도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상기 악재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장중 매수세 유입으로 저점 높여가며 반등하는 흐름이 지난 4 월~5 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이는 증시 조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수전략의 실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여전히 위험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이며 또 유의미한 지수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현시점에서 매도 대응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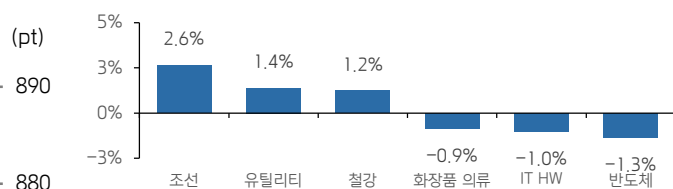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급반등 효과,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현재 1,260.0 원대)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 최근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미국 등 글로벌 대형테크업체들의 서버용 오더컷, 서버 내용연수 상각 등 루머성 재료들로 투자심리가 냉각됐었지만, 전거래일 시간외에서 급락했던 엔비디아(+5.2%)가 장중 급반등에 성공했으며, 마이크론(+4.0%), 인텔(+3.0%) 등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다는 점은 관련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원/달러 환율의 고점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매도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외국인의 장중 수급 변화에도 주목해볼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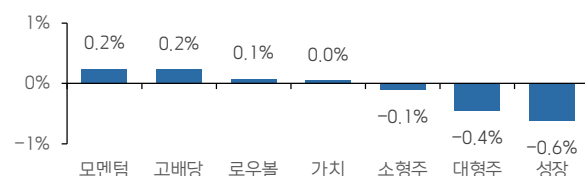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